

Deloitte.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금융산업연구소에서는 회계/감사 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Accounting & Audit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금융산업연구소 Newsletter

2021.11.30



11 월호를 발간하면서...

지난 한달동안 여러 회계관련 기구들은 한해 동안 활동을 정리하는 회의와 발표를 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EU 에서는 IFRS 17 의 도입을 승인했고, 2023 년 1 월부터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전준비작업이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특히 보험계약이 재무제표에 포함된 금융회사들은 다시한번 그 영향을 추정해보고 대응준비를 해야 합니다.

Deloitte 는 11 월 중 IFRS 관련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강조드릴 첫번째 사항으로는 2021 년 5 월 IASB 가 초안으로 발표한 'Management Commentary'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IFRS 를 적용하는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사업보고서를 작성할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IAS 7 과 관련하여 제 3 자와의 계약상 사용이 제한된 요구불예금을 어떤 계정으로 분류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 3 자와의 계약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요구불예금은 현금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으며, 국내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환경 및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G20 회의 및 ISSB 의 활동도 점점 활발해지고 있으며, 국내 기업에서도 사전 영향분석을 하고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 월에도 금융/회계 관련 시의적절한 주제를 요약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딜로이트 안진 금융산업연구소 올림

Contents

Deloitte의 IASPLUS.com 주요 뉴스	4
SEC 동향	8
PCAOB 주요 뉴스.....	8
금융감독원 회계포탈	9
주요 회계관련 뉴스 Link.....	10
Glossary	11



<https://www.iasplus.com/en/news/2021/11>



[IASB 가 준비중인 'Magagement Commentary'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4 Nov 2021

Deloitte 는 2021 년 5 월 IASB 가 발표한 'Management Commentary' 공개초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딜로이트가 제출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년 11 월 IASB 회의 요약](#)

23 Nov 2021

2021 년 11 월 15 일부터 런던에서 개최된 IASB 미팅에 Deloitte 도 참여하여 회의 중 논의된 주요 사항을 요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 요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U 의 IFRS 17 승인- Annual Cohort 예외](#)

23 Nov 2021

EU 는 IFRS 17 '보험계약'을 승인하는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Annual Cohort 관련 요구사항은 예외적인 처리가 허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EFRAG 의 [회계기준 승인관련 웹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FRS IC 2021 년 11 월 회의 주제](#)

19 Nov 2021

IFRS 해석위원회는 11월 30일 및 12월 1일 화상회의로 개최될 회의의 Agenda를 게시했습니다.

금융회사는 IFRS 9 – TLTRO III Transactions 내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웹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ASB IC 발표 예정인 Agenda decision 에 대한 의견서 제출](#)

19 Nov 2021

Deloitte는 2021년 9월 'IFRIC Update'에 발표된 IAS 7 및 IFRS 9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습니다.

국내 금융기관의 경우 사용제한예금관련 Demand Deposits with Restrictions on Use (IAS 7)의 내용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딜로이트 산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FRAG 은 IFRS 9 도입 후 검토\(Post Implementation Review, 'PIR'\)를 위해 의견개진을 위한 공개초안을 발표](#)

09 Nov 2021

EFRAG 은 IFRS 9 '금융상품'의 분류 및 측정과 관련한 요구사항이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여부, 기준서를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데 있어 어려운 요구사항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기준서를 적용함에 있어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의견을 구하는 'IASB's Request for Information(RFI)에 대한 공개초안을 발표했습니다. EFRAG의 공개초안에 대한 추가 의견은 2022년 1월 14일까지 요청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ASB 는 10 월 개최된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podcast 로 발표함](#)

08 Nov 2021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권 및 손상
- 주 재무제표
- IFRS 10, IFRS 11, IFRS 12 도입 후 Review (pos-implementation review) 등

자세한 사항은 [Deloitte 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FRS Foundation creates new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18 Oct 2021](#)

03 Nov 2021

IFRS 재단은 ISSB(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의 설립을 발표했습니다. ISSB 는 투자자들의 요구에 맞는 높은 수준의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와 관련한 기준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Deloitte 의 소개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limate-related disclosures prototype](#)

03 Nov 2021

IFRS 재단은 ISSB 가 다루는 첫번째 주제로 TRWG(Technical Readiness Working Group)에 제출된 기후관련공시 초안(Climate-related disclosures prototype)을 발표했습니다.

제26차 유엔 당사국 총회(COP26)에서 IFRS 재단 이사회는 자본 시장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지속가능성 공시에 관한 기업의 일관성과 비교 가능성 개선을 위해 국제 지속가능성 표준 위원회(ISSB 또는 "이사회")의 구성을 발표했습니다. 자본 시장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지속가능성 공시, 글로벌 ISSB 표준은 일반 재무 정보 이용자에게 더 나은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가능성 공시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1년 3월 IFRS 재단 이사회의 Technical Readiness Working Group(TRWG)은 일반적인 지속가능성 및 기후 관련 공시를 위한 두 가지 프로토타입을 발표했습니다. 프로토타입은 2022년 중반에 발표될 예정인 ISSB가 제안한 표준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개선은 향후 몇 년 동안 SEC에서 예상되는 제안된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ESG) 규칙 제정과 함께 일관되고 비교 가능하며 투명한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ESG 및 기후 공시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관심을 증대시킬 것입니다.

아래 표와 같이 프로토타입의 하나는 일반적인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것이고("일반 요구 사항 프로토타입") 다른 하나는 기후와 관련된 것("기후 프로토타입")입니다.

ISSB: Two Prototypes of Disclosure Requirements

Developed by the TRWG

Climate-related disclosu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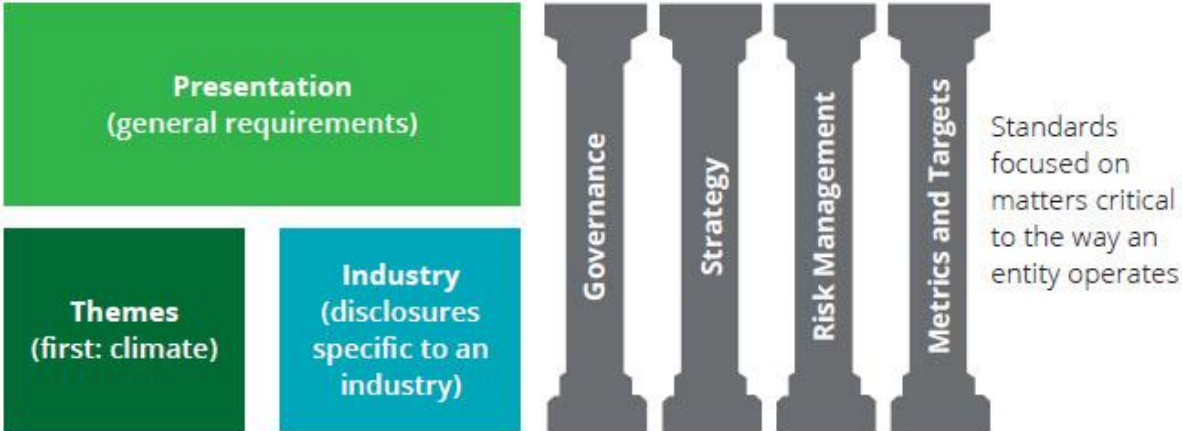
- Provide information about **exposure to climate-related risks and opportunities**, building on TCFD recommendations and industry-specific disclosures.
- Help users **assess the entity's future cash flows**, amounts, timing, and certainty over the short, medium, and long term.

General sustainability disclosures:

- Provide **material information** about the entity's **exposure to sustainability-related risks and opportunities**.
- Help **users of general-purpose financial reporting** make decisions about whether to provide economic resources to the entity.

IFRS Proposed Sustainability Disclosure Standards (by mid-2022)

IFRS 재단 이사회는 처음부터 새로운 ISSB가 비즈니스에 중요한 지속가능성 주제를 깊이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고 이사회는 초기에 기후 관련 공개를 우선시할 것입니다. 일반 요구 사항 프로토타입은 기업이 높은 수준의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모든 중요한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많은 주제별 및 산업별 표준이 더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제공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Deloitte Headup Newsletter](#)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G20 의 IFRS 재단이 제정한 지속가능성 기준 지지

01 Nov 2021

2021 년 10 월 30 일 및 31 일 개최된 G20 정상 미팅에서 기후 및 환경관련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대한 지지 선언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G20 선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he Lessons of Structured Data

10 Nov 2021

XBRL은 기간에 따라 회사 정보를 다른 회사와 비교하고 SEC 서류와 기타 기관 서류의 데이터를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규제 기관, 투자자 및 학계에서 보다 빠르고 정교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향상된 사용성은 모든 유형의 투자자에게 이점이 있습니다. 한국 FPI의 In-line XBRL 적용을 앞두고 XBRL의 활용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EC website](#)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가증권 대여 시장에 대한 신규 규정 발표

18 Nov 2021

SEC는 18일 Exchange Act Rule 10c-1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칙은 증권 대여 기관이 등록된 국가 증권 협회에 증권 대여 거래의 중요한 조건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등록된 국가 증권 협회는 증권 대여 거래의 중요한 조건을 대중에게 공개합니다. 신규 제안된 규칙에 따라 증권 대차 거래에 대한 데이터는 등록된 국가의 증권 협회에 15분 이내에 보고됩니다. 또한 각 영업일이 끝날 때 대여 기관은 대여한 각 증권의 주식 수와 빌릴 수 있는 주식 수를 보고해야 합니다. 최근과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 시장에서 시장 참가자는 공정하고 정확하며 시기 적절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제안이 증권 대여를 투명하게 이끌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EC 웹사이트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PCAOB Conference 개최

28 Oct 2021

PCAOB는 2021년 10월 28-29일 양일간 학계의 여러 논문과 함께 주요 연구 주제에 대한 패널과 PCAOB 및 규제 환경 내의 주요 문제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패널 토론으로 “감사산업: 감사 고객 및 직원의 교체에 따른 영향” 및 “감사품질의 측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0월 미팅의 Agenda와 패널의 발표 자료 등은 [PCAOB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하의 동일지배기업 간 합병 회계처리 현황 및 시사점

18 Nov 2021

IFRS 토론회 발표를 계기로 국내 기업의 동일지배기업 간 합병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현황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배경

- 국제회계기준(IFRS)에는 동일지배하에서 발생하는 사업결합과 관련한 별도 기준이 없어 그간 IFRS 적용기업은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회계처리하였습니다.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동 회계처리의 비교가능성 제고 등을 위하여 기준 제정 초기 단계로 토론회(Discussion Paper)를 발표('20.11)하였습니다.
- 토론회에서는 동일지배 사업결합 시 사업을 이전한 기업의 자산·부채는 원칙적으로 취득법(공정가치법) 적용을 제안하였습니다.

동일지배기업 간 합병 회계기준 및 회계처리 현황

- 최근 3년간('18년~'20년) 226건 중 대다수(221건, 97.8%)가 장부금액법을 적용했고, 극히 일부(5건, 2.2%)에서만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시사점

- 국내의 경우 동일지배 사업결합 시 적용하는 회계기준은 IFRS 토론회와 달리 장부금액법이 관행으로 정착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 금감원은 IFRS 제정 과정에서 국내의 회계관행도 고려될 수 있도록 회계기준원과 함께 대응하고 진행과정을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 동일지배기업 간 합병거래가 발생한 기업의 재무정보 이용자는 재무제표뿐 아니라 주석 등을 통해 합병회계처리 방법 및 손익에 미치는 효과 등을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감원 회계포탈의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회계관련 뉴스 Link

Accounting News Clips (검색기간 2021.11.01 ~ 2021.11.30)

- | | | |
|----|---|--------------------|
| 1 | 삼성·한화·교보 RBC 하락...금리 인상에 건전성 관리 '비상'(종합) | 아시아경제 (2021-11-26) |
| 2 | 4대 은행 임원 69% 연말 임기 끝... 경영진 새 판 짜기 돌입 | 조선비즈 (2021-11-26) |
| 3 | 금융권, 내부통제 기준 가이드라인 만든다...연구용역 발주 | 뉴스 1 (2021-11-26) |
| 4 | MG 손보, 재수 끝 경영개선계획 통과...넥스트 스텝은 | 더벨 (2021-11-26) |
| 5 | [우리금융 민영화] 예보, 남겨둔 5.8% 지분...넥스트 | 더벨 (2021-11-25) |
| 6 | 수출입은행, 첫 'ESG 위원회' 개최..."기후변화 대응·금융 역할 확대 필요" | 한국경제 (2021-11-24) |
| 7 | 우리금융궤 보험사 'M&A' 바람 부나 | 아시아경제 (2021-11-24) |
| 8 | 거대 사모펀드 MBK, 내년에는 공격적 M&A 나설까 | 뉴시스 (2021-11-23) |
| 9 | 새 회계제도가 뭐길래...생보업계는 '부담', 손보업계는 '기대' | 데일리안 (2021-11-19) |
| 10 | [Policy Radar] 금감원, 종합검사 개혁...경영실태평가 강화 가닥 | 더벨 (2021-11-18) |



Glossary

- ASAF** : Accounting Standards Advisory Forum 회계기준자문포럼
- ASBJ** : Accounting Standards Board of Japan 일본회계기준원
- CAQ** : Center for Audit Quality 감사품질센터
- DP** : Discussion Paper 토론서
- EFRAG** : European Financial Reporting Advisory Group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
- ESMA** : The 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 유럽증권시장감독청
- FSB** : Financial Stability Board 재무안정위원회
- IASB** :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국제회계기준위원회
- IFAC**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ccountants 국제회계사연맹
- IPTF** : International Practices Task Force 국제실무전문위원회
- IFASS** : International Forum of Accounting Standard Setters 회계기준제정기구 국제포럼
- IFRS AC** : IFRS Advisory Council 국제회계기준자문위원회
- IFRS IC** : IFRS Interpretations Committee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
- IPSASB** :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Board 국제공공회계기준위원회
- ISSB** :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 ITCG** : IFRS Taxonomy Consultative Group 국제회계기준 택사노미 자문그룹
- IVSC** : International Valuation Standards Council 국제가치평가기준위원회
- IVS** : International Valuation Standards 국제가치평가기준
- TCFD** :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기후변화관련재무정보공시전문위원회
- WSS** : World Standard-setters 국제회계기준제정기구



조태진 Partner

Tel : 02-6676-3322
Mobile: 010-9129-2247
E-mail : tajo@deloitte.com



공선희 Partner

Tel : 02-6676-1264
Mobile: 010-2112-3417
E-mail : sgong@deloitte.com



김재현 Partner

Tel : 02-6676-1175
Mobile: 010-9414-7517
E-mail : jaekim@deloitte.com



박재철 Partner

Tel : 02-6676-1159
Mobile: 010-6267-9616
E-mail : jaepark@deloitte.com



이형남 Partner

Tel : 02-6676-1268
Mobile: 010-2707-0902
E-mail : hyunlee@deloitte.com



김현웅 Director

Tel : 02-6676-1226
Mobile: 010-4004-9206
E-mail : hyunkim@deloitte.com



김현철 Director

Tel : 02-6676-3067
Mobile: 010-2204-5466
E-mail : hyunchkim@deloitte.com



최아름 Senior Manager

Tel : 02-6676-1278
Mobile: 010-8764-3260
E-mail : ahchoi@deloitte.com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